

## 또 다른 돌봄의 편향을 넘어서는 돌보는 남성의 복원\*

- 설화 〈거지 여자와 동침하고 벼슬 얻은 남자〉를 중심으로

남기민\*\*

〈차 례〉

1. 서론
2. 돌봄과 여성, 그리고 남성
3. 〈거지 여자와 동침하고 벼슬 얻은 남자〉 속 관계의 윤리와 돌봄의 순환
  - 1) 타자에 대한 공감과 평등 위에 구현되는 돌봄
  - 2) 관계 속 자기돌봄의 발현과 돌봄의 순환
4. 결론: 보편적 윤리로서의 돌봄을 위하여

### 〈국문초록〉

이 글은 설화 〈거지 여자와 동침하고 벼슬 얻은 남자〉를 중심으로, 그간 돌봄이 여성의 경험이나 윤리로 이해됨으로써 만들어진 돌봄 담론의 또 다른 편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야기에 나타난 남성의 돌봄 행위를 관계의 윤리, 그리고 돌봄의 순환 차원에서 재조명한다. 돌봄 담론은 여성에게 전가되어 온 돌봄의 불평등한 실상을 드러내는 데 기여했으나 동시에 계속하여 돌봄을 여성의 고유한 경험으로 한정하고 남성의 돌봄을 주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돌보는 남성성’ 논의가 남성의 돌봄에 주목하고 있지만 주로 현대 사회의 양상을 대상으로 하여 전근대 서사 속 남성의 돌봄은 아직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거지 여자와 동침하고 벼슬 얻은 남자〉 이야기에 나타난 남성의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4S1A5B5A16021817).

이 논문은 2025년 11월 22일에 열린 제132차 한국고전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글의 보완점을 세심하게 짚어 주시고 귀한 의견 나누어주신 토론자 선생님과 세 분의 심사자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 경상국립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행위를 개인의 덕목이나 선행으로 보거나, 이야기를 보은담의 구조로 논의하지 않는다. 대신 타자의 취약성을 인식하고 공감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응답을 내놓으며, 관계를 지속하고 확장하는 돌봄의 실천으로 분석한다. 특히 남자를 중심으로 그가 맺는 관계를 타고 뺏어나가는 돌봄을 통해 돌봄이 타자 돌봄에서 상호 돌봄, 더 나아가 자기돌봄으로 확장되고 순환되는 구조를 확인한다. 이러한 돌봄은 지배나 통제와는 무관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개인의 미덕을 넘어 관계의 윤리로 기능한다.

이를 통해 전근대 서사 속 이미 존재했던 ‘돌보는 남성’의 모습을 복원함으로써 돌봄을 특정한 젠더의 역할이나 윤리로 한정해 온 기존의 관점을 성찰하고 돌봄을 인간의 보편적 윤리이자 관계를 바탕으로 한 실천으로 그 확장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거지 여자와 동침하고 벼슬 얻은 남자>, 돌봄, 돌보는 남성성, 돌봄의 순환, 관계의 윤리

## 1. 서론

오랫동안 돌봄은 사적 공간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역할로 이해되었<sup>1)</sup> 그 결과 돌봄 주체로서 남성의 역할은 존재하지 않거나 미미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지금까지 돌봄 담론은 대부분 여성의 경험과 행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여성이 편향적이고도 부당하게 저운 돌봄의 기울어진 구조를 명백히 드러내는 데에는 성공을

1) 많은 연구자에 의해 돌봄은 여성의 경험이나 윤리, 여성의 실천으로 설명되어 왔다. 특히 캐럴 길리건, 닐 노딩스, 사라 러덕 등이 여성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돌봄을 논의하였다. 돌봄의 영역을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확장하고, 모두가 서로를 돌보아야 한다는 돌봄의 상호의존성을 주장한 조안 트론토 역시 남성을 돌봄의 주변부에 머무는 존재, 혹은 무임승차자로 본 바 있다(조안 C. 트론토, 김희강·나상원 옮김, 『돌봄민주주의』, 박영사, 2024(3판), 156~175쪽).

거두었지만 동시에 돌봄을 여성의 고유한 경험 혹은 윤리로 한정지음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였다. 돌봄의 젠더화를 비판하면서도 그러한 구도를 반복하게 되어 돌봄이 인간의 보편적 윤리나 가치로 확장되는 것을 저해하고, 그 결과 돌봄의 편향성을 강조하는 데 머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돌봄 영역에서의 젠더 평등 의식이 확산되고 공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근래 들어 남성의 돌봄 참여와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의 주체와 돌봄 역할에 대한 인식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분위기나 제도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특히 2010년대 이후 헨런<sup>2)</sup>과 엘리엇<sup>3)</sup> 등이 제시한 ‘돌보는 남성성’ 개념은 남성의 돌봄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돌봄 담론의 지평을 확장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논의는 주로 현대 사회의 돌봄 실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전 시대의 남성 돌봄은 여전히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sup>4)</sup>

과연, 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남성의 돌봄이 가능해진 것인가? 전근대 사회의 남성은 돌보지 않았는가? 이 글은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우리 옛이야기들 속에는 타인을 돌보고 타인과의 돌봄관계를 중시하는 남

2) Niall Hanlon, *Masculinities, Care and Equality: Identity and Nurture in Men's Lives*, Basingstoke, UK: Palgrave Macmillan, 2012.

3) Karla Elliott, "Caring Masculinities: Theorizing an Emerging Concept", *Men and Masculinities*, vol.19(3), 2016.

4) 우리나라에서도 남성의 돌봄 혹은 돌보는 남성성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사회과학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나성은, 안숙영, 문현아, 송민이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나성은, 「부성 실천을 통해 본 ‘돌보는 남성성’의 가능성-중년 계층 아버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5; 안숙영, 「젠더와 돌봄: 남성의 돌봄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3(2), 한국여성학회, 2017; 문현아, 「돌보는 남성성의 가능성 모색: 남성의 가족돌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7(3), 한국여성학회, 2021; 송민이, 「젠더화된 돌봄담론 속 남성돌봄의 배제와 서사화의 기능 조건:텍스트 트마이닝을 활용한 담론 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성이 분명 등장한다. 물론 서사 속 인물을 현실의 남성과 동일시할 수는 없으나, 서사는 언제나 당대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설화 속 남성의 돌봄을 통해 전근대사회에 존재했던 돌보는 남성의 단면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설화에 나타난 남성의 돌봄 행위를 통해 돌봄의 젠더화에 대해 다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남성은 돌보지 않는다’는 그간의 인식 속에, 그리고 ‘남성’과 ‘돌봄’이라는 두 단어가 주는 괴리감으로 인해 그들의 행위는 ‘돌봄’이 아닌 자애로움이나 덕, 그리고 포용과 같은 개인의 덕목이나 성품으로 해석되어 왔다.

한길연<sup>5)</sup>은 〈옥원재합기연〉 속 ‘자부(慈父)’의 형상을 분석하며 새로운 부성(父性)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논의에서 다루는 소송이라는 인물은 자기희생적인 자식 사랑을 실천하고, 공감을 통해 자식과 관계 지향적인 모습을 보이며,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배려하는 삶을 사는 인물이다. 이는 종법제가 공고화되어 엄부(嚴父)의 모습이 강화된 18세기에 창작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사뭇 독특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은 타인의 필요 혹은 욕구를 인지하고 그것에 응답하며,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재구성하는 돌봄 주체로 정의되기보다는 ‘도덕적이고 자애로운 부성’으로 정의되는 데에 그치고 있다.

김정희<sup>6)</sup>는 아내의 부정을 포용하는 남편이 등장하는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와 〈도량 넓은 남편〉을 비교하여 부부관계의 위기 극복과 신뢰를 지속해 나가는 방식을 말하기 전략과 말하지 않기 전략이라는 상반된 서사 전략을 통해 분석하였다. 홍나래<sup>7)</sup> 역시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

5)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부모-자녀관계 연구(2) - 〈옥원재합기연〉을 통해 본 부성의 새로운 가능성」, 『여성문학연구』 51,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6) 김정희,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와 〈도량 넓은 남편〉의 비교를 통해 본 신뢰의 ‘말하기’와 ‘말하지 않기’의 서사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69, 한국고전연구학회, 2025.

7) 홍나래,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 설화에 나타난 덕(德)의 의미와 그 수용

하기) 설화를 대상으로 하여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의 수발을 도맡고 평생을 보듬어준 남편의 관용과 덕에 대해 논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주목하고 있는 남성 인물의 모습은 아내의 감정을 헤아리고 공감하여 관계를 지속시킨다는 측면에서 남성의 돌봄 양상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선 연구들에서는 덕이나 포용과 같은 윤리적 성품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최어진<sup>8)</sup>은 <유효공선행록>의 유연이 수행하는 돌봄과 자기돌봄의 문제에 대해 다룬다. 유연은 아들 우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자기돌봄마저 실패한 인물이며 우성 역시 돌봄의 부재와 응답받지 못하는 돌봄을 수행함으로써 문제적 인간으로 자라나게 된 것을 인물들 간의 구체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유효공선행록>이 돌봄과 자기돌봄의 윤리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유연이 수행하는 돌봄이 관념적 효와는 구별되는 측면을 지닌다 하더라도 그 돌봄이 부친을 향한 봉양에만 머물고 아들을 향한 양육으로 이어지지 않는 비대칭성을 보이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 속 남성 돌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는 당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나 논의에서는 유연 개인의 돌봄 실패 문제로 축소하고 있어 돌봄윤리를 개인의 윤리에 머무르게 하는 데 그친다.

이해진<sup>9)</sup>은 판소리 문학 속 공동체 돌봄의 양상을 살피며 그중에서도 <심청전>과 <홍부전>을 검토하였다. 논의에서는 홍부가 타인을 돌보는 감각에 특화된 인물이라고 평가하여 남성이 돌봄의 주체로 등장하는 가능성을 분명히 드러내었다. 나아가 홍부가 제비를 돌보는 모습을 통해 홍부를

양상», 『구비문학연구』 33, 한국구비문학학회, 2011.

8) 최어진,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돌봄’의 문제-‘유연’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4.

9) 이해진, 「판소리 문학 속 공동체 돌봄의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심청전>과 <홍부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4.

‘지구 돌봄’에 대한 감각까지 갖춘 인물로 해석하여 흥부를 돌봄윤리를 체현한 인물로 평가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앞선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흥부의 돌봄을 개인의 감각과 성정의 차원에서 해석함으로써 돌봄이 관계 속에서 반복되고 유지되며 확장되는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글의 논의와 변별된다.

남성의 돌봄을 ‘덕’이나 ‘포용’과 같은 개인의 됴됨이로 이해할 때, 그들의 행위는 돌보는 자의 선한 성품에 기대게 되며 돌보는 이와 돌봄을 받는 이 사이의 관계적 맥락과 상호성은 삭제된다. 덕의 윤리는 주체의 도덕적 성품에 초점을 두지만, 돌봄윤리는 타자의 욕구에 대한 응답과 그로 인한 관계의 변화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구별된다.<sup>10)</sup> 따라서 ‘덕’으로 치환할 때 돌봄은 행위 주체의 미덕으로 한정되어 돌보는 이와 돌봄을 받는 이가 맺는 관계, 돌봄을 주고받으며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돌봄의 순환성을 포착하지 못한다. 반면 이를 돌봄으로 읽을 때 행위는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인간의 사회적 가치로 확산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설화 〈거지 여자와 동침하고 벼슬 얻은 남자〉에 나타난 남성의 돌봄 행위와 그로부터 전개되는 돌봄의 다양한 양상과 돌봄의 순환을 분석하고자 한다.<sup>11)</sup> 이 글에서 돌봄은 단순한 보살핌이나 개인의 미

10) 버지니아 헬드는 덕 윤리와 돌봄윤리가 유사하다고 하면서도 덕 윤리는 개인적 심성에 초점을 두고, 돌봄윤리는 사회적 관계와 그 실천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별지점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돌봄을 개인적 심성의 차원으로 여기며 하나의 미덕으로 축소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Virginia Held, 김희강·나상원 옮김, 『돌봄: 돌봄윤리』, 박영사, 2017, 46~48쪽, 83쪽.

11)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지 여자와 동침하고 벼슬 얻은 남자〉와 비슷한 서사구조를 가지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어 살필 만하다. 한유진은 〈문둥이 처녀 거둔 남자〉에 나타난 활인(活人)의 양상을 살펴 돌봄 차원에서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야기에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존재를 인간으로 대우해주고 현실적 차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남성 인물과 그 가족이 등장하며, 그들의 돌봄으로 인해 ‘문둥이 처녀’는 결국 병을 완쾌하고 사회적 존재로 다시 편입된다. 논의는 화자의 젠더에 따라 구연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

덕이 아니라 타자의 욕구와 필요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그 관계 속에서 자신과 타인이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관계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으로 정의한다. 다만 물질적 시혜나 부조처럼 관계의 형성과 지속이 결여되거나 그러한 지원이 위계를 강화하는 경우는 돌봄이라기보다 적선이나 구호, 구제의 범주로 보아 돌봄과 구분한다. 따라서 물질적 지원은 그 자체로 돌봄을 의미하기보다 정서적 감응, 관계의 지속과 결합할 때 한하여 돌봄으로 논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분명 존재하였으나 다른 이름으로 정의되었던 전근대사회의 이야기 속 ‘돌보는 남성’의 존재를 재조명함으로써 남성이 타인과 관계 맺는 양상, 그리고 돌봄이 타자 돌봄에서 상호 돌봄, 그리고 자기 돌봄으로 순환되는 구조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돌봄의 주체를 여성으로 한정해 온 담론의 편향성을 불식시키고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남성이 수행하는 돌봄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그간 여성의 윤리로 간

---

고 있으며 돌봄을 여성의 전유물이 아닌 호혜적 관계의 윤리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동이 처녀에 대한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주로 남성의 아내나 어머니라는 점에서 남성의 돌봄 양상을 심도 있게 분석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돌봄의 방향이 ‘남성/남성의 가족’에게서 문동이 처녀에게로만 흘러 다양한 측면에서의 돌봄을 다룰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죽은 처녀 겁탈하고 복 받은 머슴> 역시 <거지 여자와 동침하고 벼슬 얻은 남자>와 비슷한 서사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박재인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보이는 시간(屍姦)이라는 행위가 단순한 욕망의 해소가 아니라 상호 구원적 행위라고 하였다. 머슴이 성적 충동으로 인해 시간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처녀의 바람을 헤아리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머슴의 이해심과 배려심으로 인해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닌 발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의는 구원과 발복의 인과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행위의 중심이 타자에 대한 돌봄, 배려, 책임이 아니며, 돌봄의 관계적 윤리와는 거리가 있다(한유진, 『<문동이 처녀 거둔 남자>에 나타난 활인(活人)의 양상과 전승 인식』, 『구비문학연구』 73, 한국구비문학학회, 2024; 박재인, 『설화 <죽은 처녀 겁탈하고 복 받은 머슴> 속 시간(屍姦)과 발복(發福)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 『겨레어문학』 45, 겨레어문학회, 2010).

주되었던 돌봄윤리의 확장 가능성과 돌봄의 보편성을 강조하고자 한다.<sup>12)</sup>

## 2. 돌봄과 여성, 그리고 남성

돌봄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오랫동안 여성의 경험과 윤리, 실천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돌봄윤리는 1980년대 이후 보편적 정의윤리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는데 그 출발점에 있는 것은 캐럴 길리건의 논의이다. 길리건은 여성의 윤리를 보편적 정의 윤리와 달리 “타인의 욕구에 대한 민감성과 돌봄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그리고 관계의 유지와 책임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을 ‘돌봄윤리’라고 명명하였다.<sup>13)</sup>

12) 남성의 돌봄을 논의하는 일은 자칫 여성이 오랜 시간 감당해 온 돌봄의 불평등한 현실을 간과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 실제로 돌봄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여성에게 전가되어 왔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도 여성이 돌봄의 책임과 의무를 감내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남성의 돌봄을 논의하는 것이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부정하거나 여성의 경험을 지우려는 시도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돌봄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워온 사회적 구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돌봄의 가치를 모든 인간의 보편적 윤리로 확장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남성의 돌봄을 배제함으로써 또 다른 편향성을 생성하는 것 역시 경계하고자 한다. 돌봄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상호의존성과 상대의 요구에 대한 응답, 관계에 관한 윤리이며 인간이 서로가 맺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논의는 그간 돌봄을 수행해 온 여성의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그것을 다시 여성의 부담으로 되돌리는 일이 아니라 돌봄의 윤리를 사회 전체의 근본 원리로 확장하기 위한, 즉 돌봄의 탈젠더화를 통해 돌봄을 모든 이에 관한 일로 복원하기 위한 논의임을 분명히 밝힌다.

13) 캐롤 길리건, 이경미 옮김, 『침묵에서 말하기로(In a Different Voice)』, 심심, 2020. 길리건이 여성의 돌봄윤리를 주창한 이유는 ‘남성의 윤리=정의윤리’, ‘여성의 윤리=돌봄윤리’로 선을 긋거나 우열을 가리기 위함이 아니다. 이전의 연구들이 남성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도덕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삶에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여성의 목소리(다른 목소리)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삶에 대한 균형적인 시선을 가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의 경험을 아우를 관점이 생긴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돌봄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사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던 돌봄의 영역을 사회적·정치적 범위로 확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조안 트론토는 돌봄을 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sup>14)</sup> 그녀는 모든 사람이 돌봄의 책임을 인식하여 민주시민의 역할을 하는 ‘돌봄 민주주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모든 사람이 돌봄수혜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민의 돌봄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로를 도와야 하는 상호의존성을 가지며 돌봄의 책임 역시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5)</sup> 에바 키테이 역시 돌봄을 사적 감정이나 여성의 본능이 아닌, 인간의 본질적 조건인 의존성에 기반한 관계로 정의하며, 돌봄을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돌봄이 여성에 한정되는 일이 아님에도 돌봄노동이 젠더화되어 온 점을 지적하며 돌봄이 젠더가 아닌 습씨와 성향에 의해 분담되어야 하며 돌봄노동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sup>16)</sup>

이러한 돌봄의 평등에 관한 논의들에 힘입어 마침내 ‘돌보는 남성’의 탄생이 이루어졌다. 돌보는 남성성 개념을 이론화한 카를라 엘리엇은 전통적 남성성의 특징인 지배와 그와 관련된 특성-통제, 경쟁, 감정 억압, 자기 중심적 합리성-을 거부하고 돌봄의 가치-감정, 의존과 상호의존, 관계성-를 수용하는 남성성을 돌보는 남성성이라 규정하였다.<sup>17)</sup> 엘리엇에 의하면 돌보는 남성성은 단순히 여성적인 특질을 수용하거나 기존의 남성성의 반대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며,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방식이다.

돌보는 남성성은 그간 지배자의 위치에 있었던 남성들이 그러한 위치에

14) 조안 C. 트론토(2024), 앞의 책, 47쪽.

15) 조안 C. 트론토(2024), 위의 책.

16) Eva Feder Kittay,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사랑의 노동』, 박영사, 2016.

17) Karla Elliott(2016), op.cit., pp.252~255.

서 벗어나 관계적 평등과 상호의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정체성이다. 또한 돌보는 남성성은 단지 남성의 정체성을 재정의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돌봄을 사회의 중심 가치로 편입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실현될 때 경쟁과 효율이 아닌 상호 돌봄과 협력이 사회의 기본 원리로 작동될 수 있으며 엘리엇은 이러한 전환이 남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돌봄의 윤리를 내면화할 때 남성들은 그간 학습해 왔던 ‘정서적 냉정’ 상태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감정을 타인과 나눌 수 있다.<sup>18)</sup> 이러한 변화는 남성이 감정적 고립에서 벗어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즉, 돌보는 남성성은 단지 성역할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남성성과 돌봄윤리를 결합하여 사회의 가치 체계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다시 말해 보호나 부양과 같은 전통적인 남성의 가치를 타자의 욕구에 대한 감응과 응답으로 맺어지는 관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돌봄을 중심에 둔 가치로 다시 구성하는 것이다.<sup>19)</sup>

엘리엇의 ‘돌보는 남성성’ 논의는 그간 여성에 한정해 왔던 돌봄과 돌봄윤리를 남성의 경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돌봄 담론의 의미 있는 분기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의미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돌봄 인식에 대한 젠더화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엘리엇의 논의 이후에도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경험에 귀속된 것으로, 남성의 돌봄은 부차적인 현상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낸시 프레이저는 새로운 세대를 낳고 사회화하는 일, 노인을 돌보고 가계를 유지하며 공동체를 구축하는 일과 같은 돌봄 활동은 사회 재생산 활동으로 분류되어 자본주의의 작동에 필수적이라 하였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활동은 여성과 결부되고 경제적 생산 활동은 남성과 결부되어 전자가

18) Karla Elliott(2016), op.cit., p.253.

19) ibid.

후자에 종속된다고 하며 이러한 현상을 비판하였다.<sup>20)</sup> 알바 갓비 역시 감정이 사회 재생산 노동의 핵심이라고 하며 이러한 감정노동을 하는 이가 주로 여성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sup>21)</sup> 그러나 이들의 논의는 돌봄에 관한 이전의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돌봄 혹은 돌봄노동을 여성과 강하게 결합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착취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엘리엇의 논의도 지금 사회에서 돌보는 남성성이 분명한 위치를 점한다거나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이기보다는 남성성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남성들의 존재가 발견되고 있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틀로서 돌보는 남성성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과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보았을 때 돌봄의 젠더화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돌봄 연구의 관행 속에서 아직까지 충분히 내면화되거나, 주목받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오랫동안 개인의 심성, 혹은 유교적 덕목의 차원에서 해석되어 온 탓에 그 속에 담긴 돌봄의 의미가 충분히 조망되지 못했던 남성의 돌봄 행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화 〈거지 여자와 동침하고 벼슬 얻은 남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야기 속 남성이 수행하는 돌봄을 타인과 맺는 관계 속에서 살피며 돌봄이 타자 돌봄에서 상호 돌봄, 나아가 자기돌봄으로 확장되고 순환되는 구조를 확인하고자 한다.

20) 낸시 프레이저, 장석준 옮김, 『좌파의 길 -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서해문집, 2023, 115~124쪽.

21) 알바 갓비, 전경훈 옮김, 『친밀한 착취 - 돌봄노동』, 니케북스, 2024, 12~24쪽.

### 3. <거지 여자와 동침하고 벼슬 얻은 남자> 속 관계의 윤리와 돌봄의 순환

<거지 여자와 동침하고 벼슬 얻은 남자> 이야기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10편이 실려 전한다.<sup>22)</sup> 이 글에서는 각편 중 서사의 내용이 풍부한 <하동 권씨가 통영 통제사가 된 내력>을 중심으로 서사 단락을 제시하고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타의 각편 내용을 함께 살피도록 한다.

- (1) 하동 땅에 살던 부자 권씨는 서울로 올라가 한 대감집의 살림을 맡아 해주고 벼슬을 얻고자 한다.
- (2) 권씨는 십 년간 가산을 팔아 대감집의 살림을 도맡아주었는데 하루는 집에서 가족이 죽어가니 내려오라는 편지를 받는다.
- (3) 권씨가 고향으로 가는 길에 묵은 곳에서 한 거지를 만나게 되어 밥을 사먹이고 거지를 방에서 재운다.
- (4) 거지가 여자인 것을 알게 된 권씨는 잠자리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거지 여자와 동침한다.
- (5) 권씨는 거지 여자에게 아침까지 먹이고 보내며 자신이 ‘하동 사는 권선달’이라고 일러준다.

22) 『한국구비문학대계(이하 대계)』 6-4, <하동 권씨가 통영 통제사가 된 내력>(1984, 박순호 조사, 정태욱(남) 구술), 155~171쪽; 『대계』 3-4, <거지와 동침하고 팔자고친 원서방>(1982, 김영진 조사, 정필래(남) 구술), 543~549쪽; 『대계』 5-1, <살고 나면 강진원>(1979, 최내옥, 강현모 조사, 이원계(남) 구술), 574~580쪽; 『대계』 1-4, <해남 이진사>(1980, 조희웅, 김연실, 유지현 조사, 윤선식(남) 구술), 439~449쪽; 『대계』 6-6, <황활량 이야기>(1984, 최덕원 조사, 이영신(남) 구술), 207~212쪽; 『대계』 7-9, <과거길에 맺은 현풍 광씨의 인연>(1981, 임재해, 정계수 조사, 김기동(남) 구술), 446~455쪽; 『대계』 3-3, <거지 여자와 하룻밤 자고 벼슬한 사람>, 1981, 김영진 조사, 주달업(남) 구술, 102~110쪽; 『대계』 6-4, <삿갓 쓴 소선달>, 1984, 박순호 조사, 양희운(남) 구술, 734~739쪽; 『대계』 4-5, <기난한 나무장수가 부자된 내력>, 1982, 박계홍 황인덕 조사, 임인호(남) 구술, 1057~1065쪽; 『대계』 2-9, <과거 보던 방학수>, 한준혁(남) 구술, 225~227쪽. 이후 각주에서는 제목, 쪽수만 표기한다.

- (6) 권씨는 주인에게 녀 냥을 주며 거지에게 옷을 한 벌 해주라고 부탁한다.
- (7) 남겨진 거지 여자는 아들을 낳는다.
- (8) 한편 주막에서는 장사꾼들이 모여 노름을 하다가 한 장사꾼이 돈이 떨어져 권씨가 주인에게 주고 간 돈 녀 냥을 빌리고, 그 돈으로 잃은 돈을 모두 찾고 다른 사람들 돈까지 다 따게 된다.
- (9) 거지 여자의 돈 녀 냥을 빌리면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돌아서 주막에 돈이 몰리게 된다.
- (10) 주인은 관리하기가 어려워지자 돈을 모두 거지 여자에게 주고, 거지 여자는 서울 남대문 밖에 큰 기와집을 짓고 부자로 산다.
- (11) 권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대여섯 살이 될 무렵 여자는 권씨를 찾고자 하고, 마침 하동에서 올라온 이방을 만나게 된다.
- (12) 여자는 이방에게서 권씨의 소식을 듣고, 이방에게 돈을 전해주며 권씨를 서울로 오게 한다.
- (13) 이방이 권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권씨는 서울로 올라가 여자와 아들을 만나 회포를 풀다.
- (14) 다음 날 여자는 권씨에게 돈 천 냥을 주면서 쓰고 오라고 하고, 권씨는 시장에서 팔죽을 외상으로 사려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 (15) 그 사람은 정계에서 밀려난 대감집 사람이었는데, 그 집 가족들 스무 명이 굶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한다.
- (16) 권씨가 외상값도 대신 내주고 죽도 사주자, 대감이 고마운 마음에 권씨를 불러 치사한다.
- (17) 대감은 다시 정계로 복귀하고 권씨는 대감에게 통영 통제사 자리를 받는다.

이 유형의 이야기는 한 남자가 거지 여자를 도와주고 여자가 우연한 기회로 큰 재물을 얻은 뒤 은혜를 잊지 않고 남자에게 보답한다는 내용으로, 표면적으로는 일종의 보은담으로 읽힐 수 있지만 서사의 내면을 면밀히 분석하다보면 인물들이 보여주는 생동하는 감정과 관계의 윤리, 관계를

통한 상생 등이 보다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지점을 밝히기 위해 돌봄의 관점에서 서사를 재해석함으로써 보은 중심의 독해에서는 충분히 포착되지 않았던 가치들을 드러내고자 한다. 앞서 밝혔듯이 이 글에서 돌봄은 단순한 호의나 선행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돌봄은 타자의 취약성이나 돌봄의 필요에 대한 민감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인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수반한다. 또한 이 행위는 일회적인 시혜에 그치지 않고 관계를 지속하고 관계 속에서 타자는 물론, 자신까지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거지 여자와 동침하고 벼슬 얻은 남자〉 이야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타자에 대한 공감과 평등 위에 구현되는 돌봄

남자는 넉넉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벼슬을 얻고 싶어 서울에 간다. 어느 대감집에서 자신의 가산을 탕진해가며 일을 도맡아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벼슬을 얻을 수 없었고 고향에서는 ‘가족이 굶어 죽어가니 얼굴이나 보러 오라’는 소식을 전해온다. 남자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한 곳에 유숙하게 되고 그곳에서 거지를 만난다. 풍족했던 가산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바닥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가족이 굶어 죽게 된 상황을 한탄하던 남자는 추운 겨울 아궁이 근처에서 잠을 청하는 거지를 못 본 척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래서 밥을 사주고 자신이 묵는 방으로 들여 따뜻한 이불과 아랫목을 내어준다. 남자의 행동을 단순히 거지에게 베푸는 일회적 시혜로 보기는 어렵다. 그 행동의 기저에는 거지 여자의 상황에 대한 깊은 공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에서는 남자가 거지 여자를 방에 들인 이유는 거지 여자를 통해 가난하여 굶어 죽게 된 자신의 식솔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운 날 여자를 하룻밤이라도 아랫목에 따뜻하게 재우고 싶었던 것이다. 〈해남

이진사》<sup>23)</sup>에서는 거지를 보고 이진사가 “안 됐다. 나도 이 돈 떨어지면 저-저 여자 신세 같을 테니 나는 따스 방으서 자고 저 여자를 그렇게 한 데서 자게 할 수가 있나?”하고는 방으로 들인다. 〈살고나면 강진원〉<sup>24)</sup>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위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여자가 처량하게 느껴져 방에 들이고 따뜻한 아랫목에 여자를 재우는 것으로 나타난다.<sup>25)</sup>

동침을 한 다음 날 아침 남자는 여자에게 따뜻한 밥상을 내어주고 다시 집으로 향한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사는 곳과 자신의 이름을 일러준다.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자기를 소개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름을 고한다는 것은 상대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자 관계 맺기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름은 곧 한 개인을 특정 짓는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에서 남자가 거지 여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거처를 알려주는 행위는 두 사람의 만남이 일회적인 접촉으로만 남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며, 남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속하며 일정한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로도 이해할 수 있다.

돌보는 남성성은 기존의 헤게모니적 남성성<sup>26)</sup>이 추구했던 ‘지배’를 거

23) 〈해남 이진사〉, 440쪽.

24) 〈살고나면 강진원〉, 575쪽.

25) 각편에 따라 남자가 거지의 성별을 모른 채 방에 들이는 경우도 있고, 여자임을 알고 들이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 두 사람이 동침을 한다는 결과로 인해 남자의 의도를 성욕의 발현이나 취약한 타자를 대상으로 한 욕망의 실현으로 의심할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이야기의 서술은 남자가 여자를 방에 들인 동기를 성적 욕망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추위와 공핍에 놓인 타자의 처지에 대한 깊은 공감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제시한다. 물론 동침이라는 결과 자체가 욕망의 실현으로 읽힐 가능성을 남기기는 하나 그럼에도 이 장면을 돌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동침의 과정과 이후 전개에서 남자가 여자를 압제하거나 통제하는 지배성이 나타나지 않고, 이후 서사에서 남자와 여자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관계를 통해 여자가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동침’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동침으로 비롯한 관계의 지속이며 이러한 돌봄의 관계가 상호 돌봄과 자기돌봄의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모습이다.

26) ‘헤게모니적 남성성’ 개념은 R.W.코넬이 제시한 것이다. 코넬은 남성성을 단일한

부한다. 대신 긍정적 감정, 상호의존성, 관계성과 같은 돌봄의 가치들을 남성의 정체성 안으로 통합하고자 한다.<sup>27)</sup> 이야기 속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지배’의 투입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남성이라는 지위를 근거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물질적 지원을 빌미로 통제하려 들지 않는다. 지배가 끼어들 때 관계는 위계를 가지게 되며 평등해질 수 없다. 그러한 불평등한 관계에서 수행되는 돌봄은 결코 좋은 돌봄으로 이어질 수 없다.

이러한 지배의 부재는 관계의 평등, 나아가 좋은 돌봄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성의 감정 해방과도 맞닿아 있다.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억압 받아왔다.<sup>28)</sup> 그러나 이야기 속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고통받는 타인의 처지를 보고 가여워하고, 안쓰러워하며 그러한 감정을 행동으로 전환하여 타인의 고통에 응답한다.<sup>29)</sup> 즉 이야기 속 남자의 모습은 지배를 배제하고 돌봄의 정서적, 관계적 특성들을 포용하는 돌보는 남성성이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자는 동침 이튿날 거지 여자에게 당장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옷과 청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sup>30)</sup> 더 이상 구걸하지 말고 장사를

것으로 보지 않고 헤게모니, 종속, 공모, 주변화된 남성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헤게모니란 사회적 삶에서 주도적 위치를 점유하고 유지하는 집단의 문화적 역학을 뜻하며, 어느 시기이나 한 형태의 남성성이 다른 것들 보다 문화적으로 칭송받는다. 즉 헤게모니적 남성성은 그 사회에서 지배적, 이상적 권력을 정당화하는 남성성의 유형을 뜻한다. R.W. 코넬, 안상욱·현민 옮김, 『남성성/들』, 이매진, 2013, 123~125쪽.

27) Karla Elliott(2016), op.cit., p.241.

28) 벨 훅스는 가부장 문화에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더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지만 가부장 문화의 영향으로 남자아이들이 감정 발달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진짜 남자’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거나 혹은 표현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행위로 인해 남자아이들이 온전히 감정적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벨 훅스, 이순영 옮김, 『남자다움이 만드는 이상한 거리감』, 책담, 2017, 77~106쪽.

29) 헨던 역시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돌봄의 논의에서 감정을 중요시하며, 돌봄이 단순히 돌봄의 행위가 아니라 감정, 애착, 사랑, 공감과 같은 요소들이 본질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적 실천이라 하였다. Niall Hanlon, “Masculinities and Affective Equality: the case of professional caring”, *Gender, Work&Organization*, vol.31(5), 2022, p.1.

하라고 권하며 장사 밀전을 마련해 주는 등 거지 여자의 ‘이후(以後)’까지 세심히 살핀다.<sup>31)</sup> 이 대목의 핵심은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취약한 타자의 필요를 ‘당장의 결핍’에 한하지 않고 이후의 삶까지 고려하여 돌봄을 행하고, 이러한 돌봄이 여자의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전환점으로 영향력이 확장된다는 것이다.

남자는 타자의 고통에 대한 감정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여자가 한 인간으로서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을 수행한다. 이때 남자의 행위는 단발적 ‘도움’의 차원을 넘어 돌봄으로 전환되며, 이러한 돌봄의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은 돌보는 이와 돌봄을 받는 이로 고정되지 않고 각자가 서로의 필요에 응답하고 관계를 맺는 상호 돌봄의 주체로 위치하게 된다.

여자는 남자가 준 밀전을 기반으로 하여 서울에서 이름난 큰 부자가 된다. 그리고 남자가 알려준 단서를 매개로 하여 그의 행방을 찾고자 한다. 남자는 여자와 헤어져 고향으로 간 뒤 숲을 팔러 다니거나, 새우젓 장수가 되거나, 나무를 해다 파는 일을 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여자는 남자와 그의 가족들이 가난을 면할 수 있도록 돕고, 그와의 재회를 이룬다.

이러한 서사 전개는 거슬러 올라가면 남자에게서 시작된 돌봄 덕분이며 그들이 돌봄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자는 가장 취약하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남자의 돌봄을 받는다. 남자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여자의 돌봄 요구에 민감하게 응답한다.<sup>32)</sup> 또한 남자는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권력을 행사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 여자는 그러한 돌봄관계 속에서 일방적인 의존인이

30) <하동 권씨가 통영 통제사가 된 내력>, 160쪽.

31) <살고 나면 강진원>, 576쪽; <해남 이진사>, 440~441쪽.

32) 헬드의 관점에서 취약한 의존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공감, 동감, 민감성, 응답성 같은 감정을 유의미한 것으로 고려하는 것 등은 돌봄윤리의 특성이다. Virginia Held(2017), 앞의 책, 29~30쪽.

아니라 돌봄의 주체로 성장하며, 그들의 관계는 위계가 아닌 평등 위에서 지속된다.

## 2) 관계 속 자기돌봄의 발현과 돌봄의 순환

여자의 집에 머물던 남자는 장안을 돌아다니다가 팔죽 장수가 한 처녀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처녀의 사정을 묻는다. 처녀는 대감 집의 종인데 대감이 정계 다툼에서 밀려나 식구들이 연명하기 위해 팔죽을 외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외상이 잦아 화가 난 팔죽 장수가 처녀의 뺨을 때린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외상값을 갚아주고 일 년 동안 그 집 사람들의 끼니를 책임진다. 그리고 제수(祭需)를 마련할 재물도 보내준다.

제수 마련은 팔죽을 사주는 것과 같은 생존 차원의 돌봄을 넘어선 돌봄이다. 제사는 양반 가문의 핵심적 의례이자 조상을 모심으로써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궁핍할지언정 놓을 수 없는 것이며, 궁핍을 이유로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면 양반으로서의 정체성에 큰 흠집이 날 수 있다.<sup>33)</sup> 따라서 제수 마련을 돕는 것은 단순한

33) “문선왕(文宣王)의 석전제(釋奠祭)와 여러 주(州)의 성황(城隍)의 제사는 관찰사와 수령이 제물을 풍성히 하고 깨끗하게 하여 때에 따라 거행하게 할 것이며, 공경(公卿)으로부터 하사(下士)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묘(家廟)를 세워서 선대(先代)를 제사하게 하고, 서인(庶人)은 그 정침(正寢)에서 제사지내게 하고…….”(『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24일 임인 첫 번째 기사). 벼슬을 가진 자는 고관부터 낮은 계급에 이르기까지 가묘를 세워 제사를 지내게 하고, 서민도 거처하는 방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할 만큼 조상에 대한 제례가 국가의 윤리 규범으로 제도화되어 있었다. 또한 제사는 사후봉양과 가계계승의 기능을 가지며 ‘효’라는 유교 윤리의 핵심 사상을 관철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이숙인, 『『주자가례』와 조선 중기의 제례문화: 결속과 배제의 정치학』, 『한국학』 29(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39쪽.). 즉 제사는 단순한 사후 의례가 아니라 가계의 연속과 연결을 보장하고, ‘효’라는 유교 윤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기능하였다. 따라서 양반 사대부가에서의 제사는 단순한 의례를 넘어, 사대부로서의 사회적·도덕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가치 체계와 사회적 위상을 존중하는 돌봄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보았을 때 남자의 돌봄은 타자의 필요를 일률적으로 채워주는 ‘보편적 도움’이 아니라, 돌봄을 받는 사람의 개별적 상황과 그가 놓여 있는 삶의 맥락을 존중하는 ‘관계적 돌봄’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타인의 ‘자기돌봄’을 가능하게 하는 돌봄이라 할 수 있다.

자기 존재의 본질에 다가서는 일,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 역시 자기돌봄의 한 영역이다.<sup>34)</sup> 대감은 과거 재상의 반열에 올랐지만, 현재는 실세(失勢)로 인해 종을 시켜 저지에서 팔죽을 외상으로 구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사는 자신이 속한 가문과 사회 속 위치를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감은 남자의 돌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가문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자기돌봄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남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에도 난처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필요성에 응답한다. 이는 남자가 거지 여자에게 했던 돌봄과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돌봄의 양상은 각편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살고 나면 강진원〉에서 남자는 날마다 여자가 주는 돈을 다리 밑에 웅크리고 있는 거지 아이들에게 쓴다. 그리고 관리를 하지 않아 엉망이 된 기와집을 구경하다가 그곳에 사는 노인과 친해져 매일 장기를 두고 “하 두 닥까워서(딱해서)” 집도 수리해 주고 돈도 나누어준다.<sup>35)</sup> 이 이야기에

---

실천이라 할 수 있다.

34) “자기돌봄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는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것에 한정되어서도 안 된다.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돌봄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존재의 본질에 다가서는 일 역시 자기돌봄이라 할 수 있다.” 남기민, 『구령당당신선비』에 나타난 ‘셋째 딸’의 돌봄관계 맺기와 자기돌봄의 의미, 『한국고전연구』 48, 한국고전연구학회, 2024, 63쪽.

서 남자는 자신이 가진 돈을 거지 아이들을 돌보는 데 쓰는데 그 행위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어진다. 노인에 대한 돌봄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 허물어져 가는 집에 살고 있는 노인을 발견하고는 매일 찾아가 함께 장기를 두며 말뱃을 해주고, 집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준다. 취약한 이들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관계를 만들어 돌봄을 실현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삿갓 쓴 소선달〉에서도 남자는 종로 네거리에 헐벗고 있는 거지를 도와준다. 그리고 한 집 앞에 서서 우는 아이를 보고 지나치지 못하고 우는 이유를 묻는다. 아이는 할머니가 옛새를 굶어 곧 죽을 것 같아 원통해서 운다고 답하고, 남자는 아이의 집에 직접 찾아가 통미음을 쑤어서 드리라고 알려준다. 그리고 처음에는 건더기를 통째 먹게 하지 말고 국물만 떠먹이라고 이른다.<sup>35)</sup> 옛새 간 빈속이었던 노인의 위장에 갑작스럽게 곡기가 들어가 오히려 탈이 날 것을 염려한 세심한 배려에서 나온 말인 것이다.

각편에 따라 돌봄의 양상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지만 서사 속에서 남자는 공통적으로 돌봄 대상의 필요에 매우 세심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신발이 필요한 이에게는 신발을, 옷이 필요한 이에게는 옷을, 외로운 이에게는 직접 벗이 되어준다. 머무는 곳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환경을 개선해주고, 굶어 죽을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는 음식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따라 섬세하게 헤아려 돌봄을 행한다. 이것 역시 대상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의 발로로 볼 수 있다. 〈해남 이진사〉에서 남자는 여자가 돈을 주며 ‘소원대로 한번 써보라’고 하자 ‘옛날에는 돈을 그렇게 썼지만 지금은 겁이 나서 한 냥도 쓸 수가 없다’고 한다. 이야기에서는 남자가 돈을 쓸 수 없는 이유를 ‘십여 년 간

35) 〈살고나면 강진원〉, 578쪽.

36) 〈삿갓 쓴 소선달〉, 738쪽.

고생을 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자신이 그만큼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돌봄 대상에게 적실한 돌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남자는 자신이 행한 돌봄을 통해 돌봄의 주체이자 돌봄의 대상으로 다시 자리할 수 있었다. <거지와 동침하고 팔자고친 원서방>에서는 남자가 광목전에 가서 광목을 사다가 서울 장안에 있는 모든 거지에게 새 옷을 해 입힌다. 남자의 행위는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어 왕에게 불러 가게 된다. 남자는 그간의 일에 대해 고하고, 나라에서는 그 공을 높이 사 여자에게 정경부인의 직첩을 내린다.<sup>37)</sup> 정경부인은 정일품·종일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내리던 봉작으로, 그만큼 남자의 돌봄 행위가 공동체에 이익을 주는 공적 가치로 인식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남자가 부양한 일가가 다시 정계로 복귀하게 되면서 남자를 찾아 사례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각편 역시 다수 있는데, <해남 이진사>에서 이러한 지점이 비교적 자세히 나타나 있다. 남자는 고향에 돌아가게 되어 자신이 없는 동안 대감 일가가 버틸 수 있도록 나무와 쌀, 돈을 보낸다. 그가 고향에 있는 사이 몸담고 있던 당이 집권하게 된 대감이 정승이 되고, 집안을 돌봐준 남자를 찾기 위해 애쓴다. 고향에서 돌아온 남자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팔죽을 그 전이 내가 못 대줘서 굶어 죽지나 않았나' 하는 걱정애 돈을 가지고 팔죽 장수가 있던 곳으로 간다. 남자를 찾고 있던 대감 댁 여종은 그를 대감에게 데려간다. 대감은 남자의 돌봄을 치하하고 식솔들을 모두 불러 인사를 시키고는 자신은 형이 될 테니 자신의 동생이 되어 달라고 하며 남자와 의형제를 맺는다.

대감이 남자를 찾아 재물을 하사하거나 벼슬을 내리는 것으로 사례하지

37) <거지와 동침하고 팔자고친 원서방>, 549쪽.

않고, 의형제를 맺는 행위로 결말짓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일반적인 보은담이었다면 수혜자가 시혜자에게 은혜를 갚으며 관계를 끝맺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될 것이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위치에 섰을 때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에서 대감은 단지 재물을 돌려주고 보답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의형제’를 맺음으로써 ‘관계’를 지속하고자 한다. 이는 대감이 남자에게 돌봄을 받는 동안 그들 사이에 어떠한 위계도 느끼지 않고 남자가 자신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는 돌봄관계에 놓여 있다고 느꼈다는 방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돌봄을 일시적인 도움으로 환원하지 않고 의형제를 맺음으로써 남자와의 관계를 ‘대감-백성’이라는 위계적 관계가 아닌 ‘형제’라는 대등한 관계로 돌봄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남자의 형이 된 대감은 그의 소원을 물었고, 남자는 벼슬자리를 얻는 것을 소원이라 답한다. 이에 대감은 그를 해남 고을(원)에 임명한다. 〈해남 이진사〉에서 남자는 ‘이진사’로 불리는데 그것은 남자가 진사시에 합격해서가 아니라, 점잖고 살기를 잘 살아서(행동을 잘 해서) 진사에 비길 만하다는 이유로 그러한 별호로 불린 것이다. 본래 벼슬아치의 책무는 백성의 삶을 돌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데 있다. 남자가 벼슬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표면적으로는 아사 직전까지 내몰린 정승의 가족을 돌보았기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가 이미 돌보는 자로서의 자질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진사가 아님에도 진사라고 불릴 만큼 행실이 올바른 사람이었고, 자신도 어려운 시절 하룻밤 머문 곳에서 만난 거지 여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며, 팔죽 장수에게 맞고 있는 여종을 외면하지 않고, 몰락한 양반의 식물을 오랜 시간 돌보아 온 그의 삶의 태도와 돌봄의 행위가 그가 벼슬자리를 얻게 된 이유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가 타인을 돌볼 줄 아는 마음 씀과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이 있었기에 그가 바라던 벼슬

역시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sup>38)</sup>

이야기 전반에 걸쳐 남자가 행한 돌봄은 단순히 타인을 ‘구제’하는 행위에 머물지 않는다. 남자의 돌봄은 일차적으로는 대감이 생존할 수 있게 하였고, 나아가 대감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자기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남자의 돌봄이 있었기에 대감은 복권의 시기를 기다려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남자의 돌봄은 타자에 대한 돌봄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재확인하는 행위로 작용한다. 남자는 수차례에 걸쳐 맺은 타자와의 돌봄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윤리적 주체로 서게 된다.<sup>39)</sup> 돌봄은 돌보는 이와 돌봄을 받는 이 모두를 변화시키는 행위이자 가치이다. 남자는 타인의 정체성을 보존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신 역시 돌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중국에는 백성을 돌보는 고을 수령이 되어 공적 돌봄을 수행하는 사회적 주체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그가 행한 타인에 대한 돌봄이

38) 표면적으로 남자의 선행이 발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이므로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이야기군을 발복설화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이야기의 시작부터 주인공의 결핍이 ‘벼슬’로 제시되고, 그것이 결말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욕망을 충족하는 서사로 읽힐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이야기를 선행과 발복의 인과를 가진 서사 혹은 욕망 충족 서사로 보았을 때 가려질 수 있는 가치를 밝히고자 관계와 돌봄의 서사로 해석하였다. 남자의 돌봄 행위는 초월적인 사건이나 즉각적인 보상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쌓고 삶의 연대를 만들어내는 것에 방점을 둔다. 그리고 그 관계가 다시 남성 자신을 향한 돌봄으로 되돌아오는 양상을 보인다. 이 글에서 말하는 남성의 ‘자기돌봄’은 벼슬을 얻은 일 그 자체라기보다 돌봄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돌봄인으로 인식하고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돌봄의 책임을 공적 영역으로까지 확장해나가는 변화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이야기의 ‘벼슬’은 우연히 주어지는 ‘복’이나 외부에 의해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다. 관계 속에 흐르던 돌봄이 인간 삶의 현실로 표출되는 양상이 마치 보상과 같은 형태로 그려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9) 돌봄윤리의 관점에서 인간은 관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므로 자아가 타인(다른 집단)과 맺는 유대를 중시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이는 관계 속에서 정체성, 삶, 행동을 만들어가는 도덕적 주체이기도 하다. Virginia Held(2017), 앞의 책, 97~100쪽.

자기돌봄으로 순환되고, 이것이 또다시 타인을 향한 돌봄으로 이어져 마침내 돌봄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남자가 거지 여자에게 행한 돌봄은 여자에게 순간의 고난을 모면하게 한 것을 넘어 여자의 평생을 바꾸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여자 역시 자신이 획득한 부를 홀로 누리지 않고 남자와 나눈다. 이는 이 둘 사이에 상호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남자와 여자가 돌봄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돌봄은 둘 사이에서만 오가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남자는 여자의 지원을 발판 삼아 본래 가지고 있었던 돌봄인으로서의 자질을 공동체에서 마음껏 펼친다. 그는 집 밖으로 나가 다시 돌봄의 관계를 맺는다. 이때의 돌봄은 여전히 관계적이고 한층 더 지속적이다. 그의 돌봄은 관계를 낳고 그 관계는 다시 남자를 향한 돌봄으로 되돌아온다. 남자가 수행한 돌봄이 대감 일가를 살리고, 복권된 대감이 남자에게 의형제 맺기를 제안함으로써 남자의 돌봄에 응답한 것은 돌봄의 선순환이 이루어진 장면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관계 속에서 환류하는 돌봄은 남자에게 되돌아와 남자의 자기돌봄을 가능하게 하였다.

#### 4. 결론: 보편적 윤리로서의 돌봄을 위하여

이 연구는 설화 <거지 여자와 동침하고 벼슬 얻은 남자>에 나타난 남성의 돌봄 양상을 분석하여 젠더화된 돌봄 담론을 넘어 돌봄을 인간의 보편적 윤리이자 가치로 복원하였다.

설화 속 남성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에 응답함으로써 돌봄관계를 형성한다. 그의 돌봄은 타자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존중하고 스스로 자기돌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남성은 지배나 통제를 거부

하고 평등과 상호의존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돌보는 남성성’을 구현한다. 또한 그의 돌봄은 타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재구성하고 자신 또한 돌봄의 대상이 되는 돌봄의 순환으로 이어진다. 즉 돌봄은 타인의 생존과 자기돌봄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돌보는 이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자기돌봄 역시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남성의 돌봄은 타자 돌봄, 상호 돌봄, 자기돌봄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 확산되고 확장되며 결과적으로 돌봄의 선순환을 실현한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시혜-보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돌봄의 윤리를 가진 인간을 통해 평등한 돌봄 관계가 실현되고 돌봄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돌봄윤리의 서사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양상을 통해 전근대사회의 남성들이 돌보지 않았다거나 지금에서야 비로소 돌보는 남성이 등장하게 된 것처럼 여기는 통념에 균열을 내고 돌봄의 탈젠더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남성은 돌보지 않는다’거나 ‘돌봄이 여성에게 편향되어 있다’는 주장은 여성에게 과중되어 있는 돌봄의 문제를 드러내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것에서 그친다면 돌보는 남성의 존재를 지우고, 오히려 여성이 돌보는 현상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결국 돌봄의 또 다른 편향을 견고히 하는 데 기여하게 될 뿐이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은 모두가 모두를 돌보는 돌봄 사회이다. 돌보는 남성의 존재를 조명할 때, 우리는 돌보지 않는 남성의 비정상성을 비판할 수 있고, 여성이 과중한 돌봄에 짓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성별과 관계없이 모두가 돌보고 있었다는 진실을 발견할 때 누구나 돌보고 돌보아지는 사회의 자연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돌봄을 ‘여성의 일’이나 ‘남성의 외면’이 아닌, 지금까지 인간의 삶을 구성해 온 보편적 윤리로 다시 위치시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참고문헌

- 조희웅, 『한국구비문학대계』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439~449쪽.
- 김선풍, 『한국구비문학대계』 2-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225~227쪽.
- 김영진, 『한국구비문학대계』 3-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102~110쪽.
- \_\_\_\_\_, 『한국구비문학대계』 3-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543~549쪽.
- 박계홍, 『한국구비문학대계』 4-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1057~1065쪽.
- 최래옥, 『한국구비문학대계』 5-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574~580쪽.
- 박순호, 『한국구비문학대계』 6-4, 1985, 155~171쪽, 734~739쪽.
- 최덕원, 『한국구비문학대계』 6-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207~212쪽.
- 임재해, 『한국구비문학대계』 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446~455쪽.
- 
- 김정희, 「〈첫날밤에 아이 낳은 신부〉와 〈도량 넓은 남편〉의 비교를 통해 본 신회의 ‘말하기’와 ‘말하지 않기’의 서사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69, 한국고전연구학회, 2025, 97~134쪽.
- 나성은, 「부성 실천을 통해 본 ‘돌보는 남성성’의 가능성-중간 계층 아버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5, 173~212쪽.
- 남기민, 「〈구렁덩덩신선비〉에 나타난 ‘셋째 딸’의 돌봄관계 맺기와 자기돌봄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4, 51~87쪽.
- 낸시 프레이저, 장석준 옮김, 『좌파의 길 - 식인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서해문집, 2023, 1~335쪽.
- 문현아, 「돌보는 남성성의 가능성 모색: 남성의 가족돌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7(3), 한국여성학회, 2021, 33~63쪽.
- 박재인, 「설화 〈죽은 처녀 겁탈하고 복 받은 머슴〉 속 시간(屍姦)과 발복(發福)의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 『겨레어문학』 45, 겨레어문학회, 2010, 37~64쪽.
- 벨 혹스, 이순영 옮김, 『남자다움이 만드는 이상한 거리감』, 책담, 2017, 1~319쪽.
- 송민이, 「젠더화된 돌봄담론 속 남성돌봄의 배제와 서사화의 가능 조건: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담론 분석」, 연세대학교대학원, 2025, 1~119쪽.
- 안숙영, 「젠더와 돌봄: 남성의 돌봄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3(2), 한국여성학회, 2017, 107~136쪽.
- 알바 갓비, 『친밀한 착취 - 돌봄노동』, 니케북스, 2024, 1~326쪽.
- 이해진, 「판소리 문학 속 공동체 돌봄의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심청전〉과

- 〈홍부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4, 121~150쪽.
- 이숙인, 「『주자가례』와 조선 중기의 제례문화: 결속과 배제의 정치학」, 『한국학』 29(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35~65쪽.
- 조안 C. 트론토, 김희강·나상원 옮김, 『돌봄민주주의』, 박영사, 2024(3판), 1~382쪽.
- 최어진,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돌봄’의 문제-‘유연’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24, 151~182쪽.
- 캐롤 길리건, 이경미 옮김, 『침묵에서 말하기로(In a Different Voice)』, 심심, 2020, 1~419쪽.
-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부모-자녀관계 연구(2)- 〈옥원재합기연〉을 통해 본 부성의 새로운 가능성」, 『여성문학연구』 51,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142~169쪽.
- 한유진, 「〈문둥이 처녀 거둔 남자〉에 나타난 활인(活人)의 양상과 전승 인식」, 『구비문학연구』 73, 한국구비문학학회, 2024, 109~136쪽.
- 홍나래, 「첫날밤에 해산한 아내 용서하기」 설화에 나타난 덕(德)의 의미와 그 수용 양상」, 『구비문학연구』 33, 한국구비문학학회, 2011, 197~226쪽.
- Elliott, Karla, “Caring Masculinities: Theorizing an Emerging Concept”, *Men and Masculinities*, vol.19(3), 2016, pp.240~259.
- Eva Feder Kittay, 김희강·나상원 역, 『돌봄: 사랑의 노동』, 박영사, 2016, 1~393쪽.
- Hanlon, Niall, *Masculinities, Care and Equality: Identity and Nurture in Men’s Lives*, Basingstoke, UK: Palgrave Macmillan, 2012, pp.1~260.
- \_\_\_\_\_, “Masculinities and Affective Equality; the case of professional caring”, *Gender, Work&Organization*, vol.31(5), 2022, pp.1~14.
- R.W. 코넬, 안상욱·현민 옮김, 『남성성/들』, 이매진, 2013, 1~448쪽.
- Virginia Held, 김희강·나상원 옮김, 『돌봄: 돌봄윤리』, 박영사, 2017, 1~389쪽.

ABSTRACT

Beyond Another Bias in Care Discourse  
: Recovering Caring Men

Nam, Ki-min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a persistent bias in care discourse that has arisen from understanding care primarily as women's experience or ethics, focusing on the folktale *A Man Who Got a Government Position after Sleeping with a Beggar Woman*. It also reconsiders the male protagonist's caring practices in terms of relational ethics and the circulation of care. While care discourse has contributed to revealing the unequal and gendered realities of care that have long been disproportionately imposed on women, it has at the same time continued to confine care to women's distinctive experience and to marginalize men's care.

This study analyzes the male protagonist's actions in the tale as caring practices that recognize another's vulnerability, offer concrete responses grounded in empathy, and sustain and extend relationships. In particular, by tracing care as it unfolds within the relationships the man forms, the article demonstrates a cyclical structure in which care expands and circulates from care for the other, to mutual care, and further to self-care. Such care is enacted within egalitarian relationships, unrelated to domination or control, and functions not merely as an individual virtue but as an ethic of relationships.

By restoring the figure of the "caring man" already present in premodern narrative, this article seeks to reflect on the tendency to limit care to a gendered role or ethic and to suggest the broader possibilities of care as a universal ethical practice grounded in relationships.

**Key Words** *A man who got a government position after sleeping with a beggar woman*, care, caring masculinities, the circulation of care, relational ethics

논문투고일: 2026.01.14.

심사완료일: 2026.02.05.

게재확정일: 2026.02.05.